뉴질랜드, 대만, 일본의 양록산업을 돌아보고 양록 선진한국 가능성

대표 이 중 해

본인은 한국양록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양록시찰단의 일원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만, 뉴질랜드, 일본의 양록시설을 견학하고 귀국하였다.

10일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3개국을 돌아본 관계로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 기간동안 보고느낀 점을 여기에 적음으로해서 모든 양록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각 나라별 양록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1)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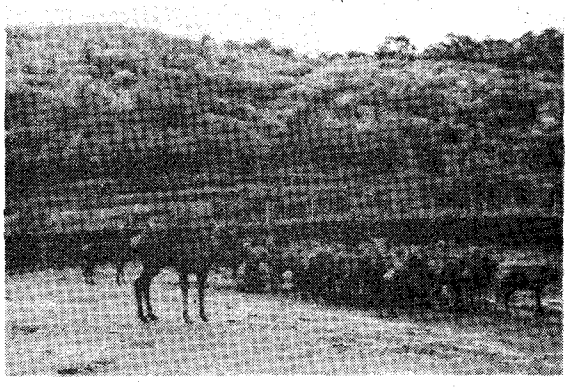
녹용생산위주, 녹미, 녹신을 선호해

대만에서 사슴농장을 방문하면서 가장특이했던 것은 사슴을 2평정도의 칸에 한마리씩 가두고 사육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대만의 이러한 사육법이 녹용 생산량을 증대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이것은 단순히 숫컷들의 왕위쟁탈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농장의 사육자에게 물어본 결과 가두어 기를 때나 야외사육장에서 기를 때나 녹용생산량은 별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정기뿐만이 아닌 1년내내 이렇게 녹사내의 그늘진 울타리내에서 가두어 기르는 관계로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레드디어 한마리가 뒷다리 근육마비로 인해 기립불능 상태인 것을 보았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양록책자에 나오는 목걸이를 매고있는 꽃사슴은 발정기때 암놈의 부상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우리가 먼저 방문한 농장은 60마리의 뉴질랜드산디어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60마리 전부가 숫컷으로 이는 암컷의 가격이 숫컷의 약 1/5~1/6밖에 되지않는 관계로 암컷은 사육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료는 가격이 저렴한 맥강을 주로 급여하고 사탕수수를 주조사료로 급여하고 있었다.

대만의 양록업은 정부나 관계기관의 허가나 신고없이 아무나 사슴을 기를 수 있고 아무런 세금도 없다고 한다.



또한 대만에서는 더많은 녹용생산을 위해 많은 레드디어가 수입되어 여러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었는데 레드디어의 평균녹용생산량은 65~70냥 정도라고 한다. 대만 국내 내수용녹용은 건조하지 않고 생녹용으로 판매하는데 소매가격이 한냥에 20,000~28,000원 정도이었으며 녹혈은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절각시 술에 섞어서 보관한 후에 녹용판매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대만사람들은 녹용외에도 녹신(사슴의 성기), 녹미(사슴의 꼬리) 등에 대해서도 매우 선호하고 있었다.

2) 뉴질랜드

무한한 초원의 목축국가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의 두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중최고기온은 북섬이 20~24℃ 남섬이 20℃정도이고 연중최저기온은 각각 4℃, 7℃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간 사슴농장은 웰링턴 근교에 있는 "와레로와" 농장이었다. 웰링턴의 지형은 경사가 비교적 심한 편인데 이 농장도 역시 경사가 다소 심했다. 그러나 산이 별로 높지는 않았다. 와레로와농장까지 가는 동안 창밖에 보이는 풍경은 끝없이 이어지는 초지에 면양과 소들이 풀을 뜯는 모습뿐이었다.

이 농장에서는 레드디어를 약 600 마리정도 사육하고 있었으며 계절이 우리나라와 반대이므로 숫컷들은 뿔을 달고있었고 일부 사슴들은 절각을 시작하고 있었다.

울타리는 3 m간격으로 나무기둥을 박고 18 cm의 정방형철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 2줄의 전기목책선을 연결하였는데 전체높이는 약 2m 이었다. 농장관리책임자에게 철망의 높이가 너무 낮지않으냐고 물어보니까 몇년전에 한 마리가 뛰어넘은 일이 있기는 했으나 별 이상은 없다고 하였다.

몰이통로(race)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번에 많은 숫자의 사슴을 몰기위해 폭이 3~4 m정도되었으며 모든 사육장(paddock)사이에는 이러한 몰이통로를 만들어 분리와 이동을 용이케하고 있었다.

절각법은 우리나라의 보정식과 함정식 그리고 마취법을 혼용한 방법으로 절각할 사슴들을 몰이통로를 통해 절각, 치료, 운송을 위한 축사내로 이동시킨 후 한마리씩 절각하는데 사슴이 보정틀에 들어가면 옆벽을 좁혀 사슴의 흉부를 압박보정한 후 밑발판을 떨어뜨려 사슴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한 다음 보정틀 전면에 부착된 끈으로 사슴의 뿔틀을 고정시켜 사슴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럼푼을 주사해 반마취시켜 절각을 한다. 지혈은 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 염화철과 같은 약품처리를 하고 있었다.

웰링턴을 떠나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 크라이스쳐치로 갔다. 뉴질랜드 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관계로 북섬이 남섬보다 기온이 높아 사슴사육시 녹용이 남섬보다 일찍 각질화되기 때문에 사슴은 주로 남섬에서 사육되고있었다. 그래서인지 크라이스쳐치에서도 웰링턴과 같이 많은 면양과 소가 눈에 띄었으나 사슴농장이 눈에 띄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크라이스쳐치는 웰링턴과는 달리 평지가 많알다.

크라이스쳐치에서 제일 먼저 간 농장은 한국교포가 운영하는 농장이었는데 이 농장은 약 60 만평의 부지위에 숫컷 성록 240 마리, 숫컷 새끼 80 마리를 포함해서 레드디어 600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그외에도 소, 양등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 농장의 사슴은 뉴질랜드산 암컷에 캐나다산 레드디어나 엘크를 교잡시킨 잡종이었다. 이 농장뿐만아니라 뉴질랜드의 많은 사슴농장들은 몇년전부터 녹용과 고기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엘크를 도입하여 레드디어와의 교잡종을 생산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현재 절각초기인 동시에 암컷들은 임신말기인데 이들의 분만율은 평균 80～85%정도이며 교미기에는 100마리의 암컷무리에 10～15마리의 숫컷을 합사시키며 20～25일 간격으로 숫컷들을 교체해준다고 하였다.

절각시기는 낙각후 40～60일경인데 이는 기후적인 관계로 인하여 녹용이 우리나라보다 일찍 각질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이 곳에 갔을때가 낙각후 40～50일 정도되었을 때인데 뿔의 형태가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70～80일된 뿔의 형태와 비슷하였지만 크기는 작았다. 이 농장의 평균녹용생산량은 마리당 약 1.5 *kg* 정도라고 하였다.

그 농장을 나와 약 220마리의 레드디어를 사육하는 "쥰 브레블리" 농장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농장의 주인은 사슴들의 입에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는데 그 약물은 구강청결제와 위장장애예방약으로 1년에 2회 주입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쥰 브레블리농장 근처에 엘크를 위주로 사슴을 사육하는 농장이 있다고하여 계획에도 없는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농장에서는 엘크와 캐나다산 레드디어를 160마리 사육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도착한 시간에 주인은 그 농장에서 직접 조제한 펠렛 보충사료와 조사료(건초)를 트럭에 싣고 사슴사육장안으로 들어가 사슴들에게 급여하고 있었다. 그 펠렛보충사료는 언뜻보기에 보릿짚이나 볏짚등이 분쇄되어 들어있었으며 석회성분도 함유한듯 하였는데 펠렛사료의 성분을 물어보았더니 가르켜주지를 않았다. 그 펠렛사료를 한국에 가지고와서 성분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물기준)

조단백질	13.7%	조회분	9.7%
조지방	5.1%	가용무질소물	65.9%
조섬유	5.6%		

3) 일 본

관상위주의 양록

일본에서는 북해도에 있는 사슴농장을 견학하였다. 이 농장에는 약 130마리의 사슴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녹용의 인기가 별로 없고 주로 관상용으로 사육하고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숫컷들은 각질화된 뿔을 머리에 달고 있었다. 사료는 약간의 건초외에 수박, 호박, 감자, 메론등을 먹이는데 이것들은 구입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1975년에 한국에서 수입한 북해도산 사슴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 사슴들은 주로 야생사슴을 생포해서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하였다.

4) 결 론

사계절이 뚜렷하고 다양한 조사료공급이 가능한 우리나라가 적지

이상 3개국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각 나라마다 자기네 자연환경에 맞는 특유의 사양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개체별 생산능력이나 영양상태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사슴이 가장 우수하다고 느꼈으며 뉴질랜드의 기후나 토지조건은 목축업에는 가장 알맞았으나 관목류를 즐기는 사슴의 습성을 충당해줄 수 없고 추운 겨울이 있는 한국이 사슴을 사육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느꼈다. *

청원사슴목장 대표